

# 광주은행 지역현안사업 도우미 역할 '톡톡'

### 광주형일자리 3대주주 참여... 투자 철회한 시중은행과 대비 송중욱 행장 "향토은행으로 지역민 위한 사회적 책임 다할 것"

향토은행인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사진)이 지역민과 지역기업을 위한 현안사업 행거기와 사회적 역할에 앞장서면서 지역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은행은 최근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1호이자 광주시의 최우선 역점사업인 '광주 완성차 위탁생산공장 합작법인'에 260억원을 투자자본금 형태로 출연해 3대 주주로 참여한다. 광주은행이 출연키로 한 260억원은 합작법인 설립 비용 자기자본 2300억원 중 1대 주주인 광주시(광주그린카진흥원) 483억원(21%), 2대 주주인 현대차 437억원(19%)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액수(11%)다.

광주시와 광주은행의 자본이 30%를 넘어섬에 따라 광주형일자리 자동차 사업에 지역민과 지역노조의 의견이 향후 잘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주은행은 광주·전남 대표 은행으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광주은행의 이번 '광주 완성차 위탁생산공장 합작법인'에 대한 대규모 출자는 투자협약서에 서명까지 했다가 철회하거나, 투자를 밝혔다가 철회한 시중은행의 행태와 극명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의 제2금융권을 담당하고 있는 시중은행은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 투자자 명단에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완성차 위탁생산공장 합작법인에 광주은행이 3대 주주로 대규모 출자를 해 준 것에 지역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 광주은행은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인 반면 2금융권인 시중은행은 사업 참여에 대한 의지가 없었으며 다른 시중은행도 사업참여 마지막 기일까지 내부적인 승인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시중은행들과 큰 대비를 이뤄 향토은행으로서 광주은행의 위상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의 '광주 완성차 위탁생산공장 합작법인'에 대한 통 큰 결단은 송중욱 광주은행장의 지역밀착경영, 향토은행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철학에 따른 것이다.

송 행장은 51년 광주은행이 그동안 지역민에 받아왔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고객중심의 지역 밀착경영과 지역 현안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송 행장은 취임 이후 초저금리에 따른 마진 압박에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무인 점포 등장 등으로 격변에 처한 금융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경영



안정화를 꾀했다. 송 행장은 시중은행들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지방은행으로서 지역적·규모적 한계를 벗어나 '비대면·탈(脫) 지방화' 영업망 다변화 등 경영 약화에 선제적으로 대비 하면서 향토은행으로서 광주은행의 위상을 다졌다. 이 외에도 송 행장은 지난 7월12일부터 28일까지 열린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식 후원은행으로서 대회 성공을 위해 대내외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섰다. 송 행장은 지난 5월27일 열린 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 전체 은행장들에게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적극 홍보하고 입장권 구입을 독려 해 큰 성과를 올렸다.

이는 향토은행이라는 송 행장의 자긍심과 의지가 없이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광주은행은 그동안 지방은행의 가장 큰 역할인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경제의 활력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창출, 금융인재 양성,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발생한 이익을 각종 장학사업, 문화·체육·복지 사업에 쓰는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익을 되돌리는데 최선을 경주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에 환원하고 있다.

광주U대회, 광주비엔날레, 여수엑스포 등 굵직한 지역 개최 국제행사 공식 후원과 90%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는 것도 향토은행으로서 광주은행의 역할 수행이다.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투자와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설과 추석 때 중소기업 특별자금 대출과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 등 지역의 어려운 경제 현안에 대해 민생안전을 위한 자금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든든한 지역 지킴이로서 광주은행은 지역민의 51년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현안사업에 앞장 서 함께 하고 고객 중심의 지역 밀착경영을 통해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 "우리 회사 특허·신기술 주목해 주세요"

### 도로·하천 공사 기업 대상 익산국도청, 자재·기술 홍보회

"우리 회사 특허·신기술 주목해 주세요"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은 지난 29일 익산청 대회의실에서 도로와 하천 공사 관련 신생·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신기술과 특허 등 우수기술을 홍보하는 '제1차 자재·기술 합동홍보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익산국도청은 신생기업이 개별적으로 발주처 및 설계업체 관계자를 찾아다니며 영업 활동을 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렬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합동홍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익산국도청 및 4개 국도사무소, 10개 설계용역회사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업체들의 발표를 지켜봤다.

합동홍보회 참여 업체는 ㈜유신피플 등 광주와 전남·북지역 10개사였고,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익산청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를 희망한 업체다.

가드레일 지주 지지력 보강재 관련 특허를 보유한 A업체 대표는 타공법과 비교해 최단시간 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함께 무콘크리트 공법 사용으로 친환경적이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다는 경제성을 강조했다.

IoT기술을 접목한 교통안전 시설물 분야의 B업체 대표는 태양광 LED를 활용한 무선 교통제어 시스템으로 도로 시인성을 증진해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된 사례를 제시했다.

이날 발표 등을 통해 우수 공법으로 인정받은 업체 제품에 대해서는 부서 검토 후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추가 합동홍보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전남 중기, 9월 경기 회복 기대

### 중기 지역본부 경기전망 조사 업황전망 건강도 지수 85.1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은 9월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가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19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9월 경기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황전망 건강도 지수(SBHI)는 전월보다 8.3포인트 상승한 85.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6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모처럼 반등한 것으로, 휴가철이 끝나고 신학기를 맞아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여전히 부정적 전망이 많았다.

SBHI는 100이상이면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더 많다는 뜻이고, 100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지역별로 광주는 전월(81.5) 대비 7.5포인트 상승한 89.0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은 전월(68.3) 대비 9.6포인트 상승한 77.9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전월(77.0)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78.2로 나타났으며, 비제조업은 전월(76.6) 대비 14.1포인트 상승한 90.7로 조사됐다.

항목별 조사에서도 내수판매 전망(73.2→83.8)과 수출전망(73.2→75.9), 경상이익 전망(69.4→77.9), 자금사정 전망(68.9→73.3)은 모두 상승

했다.

반대로 추세를 분석하는 '고용수준 전망'(101.3→100.5)은 전월대비 소폭 하락해 기업의 일손부족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7월 조사된 광주·전남 중소기업의 경영여로(복수응답) 사항은 '내수부진(69.2%)', '인건비 상승(50.8%)', '업체 간 과당경쟁(45.6%)', '자금조달 곤란(28.2%)', '판매대금 회수 지연(27.7%)'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평균가동률은 73.1%로 전월대비 0.3%포인트 상승했고, 지역별로 광주는 전월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73.5%, 전남은 전월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72.7%로 조사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 로또복권 (제874회)

| 당첨번호             | 2등 보너스        | 3등 보너스    |
|------------------|---------------|-----------|
| 1 15 19 23 28 42 | 32            |           |
| 등위               | 당첨금(원)        | 당첨자수      |
| 1 6개 숫자일치        | 1,117,123,917 | 18        |
| 2 5개 숫자+ 보너스숫자일치 | 49,284,879    | 68        |
| 3 5개 숫자일치        | 1,496,149     | 2,240     |
| 4 4개 숫자일치        | 50,000        | 110,655   |
| 5 3개 숫자일치        | 5,000         | 1,830,269 |

## 광주·전남 휘발유값

### 주내 1500원 넘을 듯

### 유류세 환원 첫날 10원 올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끝난 1일 광주·전남 휘발유값이 10원 가까이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1ℓ 당 보통 휘발유 가격은 광주 1484.38원·전남 1493.92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날보다 광주 9.68원, 전남 8.69원 오른 가격으로 이번 주안에 지역 평균 휘발유값이 1500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1ℓ 당 1509.16원으로 전날보다 12.48원 급등했고 서울 평균 가격은 1600원을 넘어섰다. 경유 1ℓ 당 평균 가격도 광주는 7.17원 오른 1339.32원, 전남은 6.63원 오른 1354.22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면서 1일부터는 정상 세율이 적용된다. 유류세가 환원되면 휘발유는 현재 가격보다 1ℓ 당 최대 58원, 경유는 1ℓ 당 최대 41원, LPG 부탄은 1ℓ 당 최대 14원 오르는 것으로 예상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유기농 와인 추석선물 하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하1층 와인매장에서 프랑스 론 지방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만든 유기농 와인을 '추석 선물세트'로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